

‘가구 한우물’ 한샘 강승수號 글로벌 공략, 10조 매출 넘본다



글로벌·리모델링사업 역량 집중
집콕족 늘며 반사이익... 매출 ↑
강회장 “韓 대표하는 기업 도전”



강승수 한샘 회장.

국내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이 지난해 내세웠던 ‘매출 10조’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공격적으로 2023년, 보수적으로 오는 2027년까지 국내에서 10조원 매출을 거두기로 한 계획을 착착 실행에 옮겨 가기로 하면서다.

특히 한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이 예상됐던 매출이 지난해 다시 2조원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전사적으로 고삐를 더욱 죄는 방침이다.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새 길도 모색하고 나선다.

6일 한샘에 따르면 강승수 회장은 ▲ 사업본부 핵심역량 확보 ▲ 전략기획실 강화 ▲ 세계화 도전 기반 확립을 2021

년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한샘이 창립 50주년을 맞은 지난해부터 최고경영자(CEO)로 한샘을 이끌어오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 국내 10조 매출 달성 ▲ 10조 경영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기반 확립을 중기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강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1년은 회사가 미래 50년의 나아갈 방향과 장기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도전을 본격 시작하는 뜻 깊은 해”라면서 “온라인과 디지털 기술 기반의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중기에 국내에서 10조를 돌파하겠다는 목표와 전략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핵심 역량을 갖고 중국,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면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강 기업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회장이 이끄는 한샘은 리하우스, 온라인, 키친바흐, 인테리어, 특판 등 5개 사업본부를 중심으로 한 경영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지난달엔 연말 인사를 통해 리하우스 사업본부 안홍국 부사장을 사장으로, 인테리어사업본부 김용하 상무를 전무로 각각 승진시키는 등 전열을 가다듬기도 했다.

특히 올해엔 리하우스 표준매장을 기존보다 2배 많은 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스타일패키지 ‘월 1만세트 판매’에도 도전한다. 온라인사업본부는 ‘리빙 전문 커머스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져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연계하고, 시공과 물류도 접목해 서비스를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략기획실을 강화해 ‘10조 매출’을 위한 전사적인 경영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한다.

강 회장 역시 부회장 시절 전략기획실을 총괄했다. 지금은 이영식 부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업무를 맡고 있다.

강 회장은 “본부장, 팀장 후보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3년의 중기 목표를 책임질 수 있는 본부장과 1년의 경영성과를 책임질 수 있는 팀장 후보를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정도 경영 및 상생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높아진 기대수준에 비추어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투명 경영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당시 연결기준으로 2조 625억원으로 ‘2조 매출’을 달성했던 한샘은 2018년 1조 9285억원, 2019년 1조 6984억원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가구, 인테리어 등이 반사이익을 받아 2조원 안팎의 매출로 실적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해야” 10개 경제단체 한 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가 긴급 입장문을 6일 발표하고 다시 한번 ‘완화’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반원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국회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10개 경제단체가 긴급 입장문을 6일 발표하고 다시 한번 ‘완화’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반원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중기중앙회

중기부,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1곳당 3년간 최대 12억원 지원
내달 19일까지 희망기업 모집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곳당 3년간 최대 12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K-스마트등대공장’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K-스마트등대공장 사업은 세계 제조

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으로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대기업을 위주로 선정하는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을 벤치마킹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스마트공장을 말한다.

사업 신청 자격은 AI의해 제조공정을 분석하고, 실시간 제어까지 가능한 고도화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중기부는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전국의 19개 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로 3개사 이내에서 후보기업을 추천하도록

했다.

K-스마트등대공장 사업은 ▲고도화 ▲지속가능성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업종을 대표하는 총 10개사를 선정해 연간 4억원씩 3년간 지원한다. 기계·전자·화학·뿌리 등 주력업종, 식료품·의약품 등 기타업종으로 구분해 각각 선정한다.

뽑힌 기업은 전문기관 등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밀진단과 연차별 전략수립을 먼저 지원받는다.

/김승호 기자

웰스, 초소형 냉온정수기 출시

웰스가 초소형 냉온정수기 ‘웰스더원 디지털 데스크탑’ (사진)을 출시했다.

6일 웰스에 따르면 웰스더원 디지털 데스크탑 냉온정수기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선보인 ‘디지털 냉각 시스템(DCS)’을 적용해 가로 13.4cm, 세로 39cm, 깊이 37.7cm의 최소 크기를 구현했다.

컴프레서, 저수공간 등 정수기 내 각

종부품을 없애자사의 기존 동급모델 직수형 정수기에 비해 약 50% 이상 크기를 줄여 좁은 주방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정책자금 평가 ‘K-VALUE’ 도입

(인공지능 평가모형)

비재무적 성과 우수기업 신속 발굴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평가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본격 쓰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비대면·디지털 기반 혁신성장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평가에 인공지능 평가모형 ‘K-VALUE’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중진공은 17만개 내부데이터와 540만개 외부데이터를 활용해 부실, 성장성, 수익성, 정책 목적성을 기준으로 100개 이상의 핵심지표를 추출하고 AI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평가모형을 완성했다.

평균임금 수준, 특허정보, 에너지 사용량 등의 핵심지표에 대한 최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최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구성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번 인공지능 평가모형을 통해 재무성과는 미흡하지만 비재무적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발굴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또한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대 및 혁신기업 지원으로 정책자금과 기관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중진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대면 평가를 시범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비대면 평가(ZERO-TACT)로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중진공은 기업평가 체계 고도화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범위 확대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주도 신산업 확대를 위한 전용모형 개발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창업진흥원, 인권·청렴 경영체계 강화

인권경영·청렴선언대회 개최
청렴 옴부즈만제도 신설·도입

창업진흥원이 올해 인권경영, 청렴경영에 더욱 적극 나선다.

창업진흥원은 2021년을 맞아 ‘인권경영 및 반부패·청렴선언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창업진흥원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형성과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임직원의 의지와 결의를 서약했다.

또 인권 존중과 불합리한 갑질 관행 근절을 통한 ‘차별 없는 건강한 직장, 창업생태계 마련’을 위해서 뜻을 모았다.

창업진흥원은 지난 2019년 8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하고, 자체감사와 일상감사 실시, 준



김광현 창업진흥원장(가운데)이 임직원들과 ‘인권경영 및 반부패·청렴 선언대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업진흥원

감사인제도 운영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올해엔 지난해에 이어 청렴 옴부즈만 등 관련 제도를 신설·도입해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창업생태계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